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배포일자	2022년 12월 1일(목) 총 5매	
담당부서 수질환경과	담 당 자	• 수질보전팀장 이석동 ☎440-3706 • 담당자 박철윤 ☎440-3707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폐수수탁처리업 TMS 설치로 비정상 폐수처리 해결

-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업체 13곳에서 자발적 설치 및 운영 관리 동의 받아 -

- 폐수처리 투명성 확보, 공공하수처리 부담 감소 및 물환경 개선 성과 거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폐수수탁처리업체에 대해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자발적 설치와 운영 동의를 받아내 비정상적인 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Tele-Monitoring System

수질TMS는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상시 감시·점검해 폐수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으로 3종 이상 사업장은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4종 이하 사업장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인천시의 경우 타 사의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약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17곳 운영되고 있는데, 3종 이상 사업장 3곳은 2021년 수질TMS를 의무 설치했지만, 나머지 14곳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자발적 설치 대상이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원인으로 수질TMS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서 폐수를 비정상으로 처리한 채 방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물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비 확보와 함께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올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4종 이하 전체 사업장 14곳 중 무방류 업체 1곳을 제외한 13곳에 대해서도 수질TMS 자발적 설치와 운영 동의를 받아냈다.

13곳 중 7곳은 올해 조기 설치비용을 시비로 지원해 수질TMS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또, 5곳이 내년에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1곳도 폐수처리시설 전반적인 보수공사와 병행해 2024년까지 자발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한국환경공단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협의해 자발적 설치 사업장의 수질TMS를 연결해 의무설치 사업자와 동일한 관리 운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용성 시 수질환경과장은 “폐수수탁처리업체들의 자발적인 수질TMS 설치로 폐수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폐수수탁처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운영비 지원등 행·재정적 지원을 논의하고 다양한 수질정책 마련과 민·관 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환경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 폐수수탁처리업 TMS 자발적 설치사업(개요)

참고 폐수수탁처리업 TMS 자발적 설치사업(개요)

□ 추진배경

○ 3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농도 폐수 유입 원인으로 폐수수탁처리업의 비정상 처리수 유입 판단

○ 배출허용기준 상시 감시를 위해 수질TMS 의무설치 개정 등 노력으로 2020년 3종 이상 의무 설치(4종 이하 비대상)

○ 4종 이하 사업장에 대해 자발적 설치사업 추진으로 폐수처리 투명성 확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관내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11개사가 자발적 수질TMS 설치 동의하여 물환경 개선

○ (사 업 비) 총사업비 26억 (사업장당 설치비 2억원)

- 산출내역

구 분	'23년 사업	'24년 사업	자부담 사업
총사업비	11개사 : 22억	1개사 : 2억	1개사 : 2억

○ (사업내용) 관내 폐수수탁처리업 17개사

구 분	의무설치	자발적 설치
대 상	3개사(서구 관내 3종 사업장)	14개사(남동구 3개, 서구 11개 - 4종사업장)
추진결과	2020년 설치비 지원 후 운영중	- 11개사 동의(남동구 1, 서구 10) - 미동의 3개사(중견 1, 무방류 1, 검토중 1)
지원내용	운영비 지원 (국비 40%, 시비 10%)	- '22년 : 7개사 조기설치비 교부(시비 7억) - '23년 : 4개사 교부(국비 3.2억 확보)
협의 및 추진		- (1개사) '23년 국비 확보 후 '24년 설치 - (1개사) 중견기업으로 '23년 자부담 설치

* 폐수수탁처리업 수질TMS 설치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 그동안 추진사항

- ○ 자발적 설치 협조 간담회 추진 (총 3회)
- ○ 수질TMS 설치 지원사업 및 관리 계획 보고(‘22. 9. 6.)
- ○ 수질TMS 자발적 설치 한국환경공단 연결 협의(‘22. 9. 26)
- ○ 자발적 설치 사업장 협조 요청(‘22. 10. - 한국환경공단)
  - 환경부 법령 질의 회신 문서 및 11개소 동의서 제출
- ○ 2022년 조기설치 시비(7억) 보조금 교부(‘22. 10. 28.)

▢ 기대효과

- ○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처리 투명성 확보
- ○ 배출허용기준 상시 감시로 공공수역 물환경 개선
- ○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수질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 2022. 12.: 7개사 조기설치 수질TMS 설치
- ○ 2023. 2.: 4개사 사업비 교부 수질TMS 설치
- ○ 2023. 2.: 중견기업 1개사 자부담 설치 협의
- ○ 2023. 5.: 1개사 국비 확보 후 2024년 설치 협의

수질TMS(수질자동측정기기) 란?

○ 근　거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등)

○ 대　상

-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폐수수탁처리업 3종 이상 3개사 의무 설치
- 4종 이하 14개 사업장 의무설치 제외 사업장 대상

○ 수질TMS 개요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방류
- 배출허용기준 준수 상시감시를 위해 최종방류구에 수질측정기기* 설치하여 한국환경공단 수질관제센터와 연결하여 24시간 감시

  * PH, TOC, SS, T-N, T-P,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유량계

- 기준 초과시 관할 지자체 데이터 통보하여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

○ 관내 수질TMS 설치 사업장 사진